

삼 위 일 체 주 일 예 배  
THE WORSHIP SERVICE OF TRINITY SUNDAY

주후 2021년 5월 30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02 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새 268)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2 번 시편 (Psalm) 96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Leading	베드로전서(1 Peter) 2:11-21	임소영 집사
설 교 Sermon	“다시 만나는 교회(29) – 자유함으로” (Gathering Together Again – With Freedom)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24 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앞이로다”는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염려와 불안함으로 인해, 삶에서 기쁨과 감사를 자주 상실했고, 문제에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적 무지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복음을 알고, 또한 복음을 살아내는 믿음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5:3-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한글개역 **벧전 2:16**)

“Live as free men, but do not use your freedom as a cover-up for evil; live as servants of God.” (NIV **1 Peter 2:16**)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5/30 (주일)	5/31 (월)	6/1 (화)	6/2 (수)	6/3 (목)	6/4 (금)	6/5 (토)
	신3	신4	신5	신6	신7	신8	신9
본문	시85	시86,87	시88	시89	시90	시91	시92,93
	사31	사32	사33	사34	사35	사36	사37
	계1	계2	계3	계4	계5	계6	계7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6/2수 오후7:30)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고후 5:1-10)

토요 새벽기도회 (6/5토 오전6:30)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시 40:1-10)

지난 주일(5/23) 말씀

“다시 만나는 교회 (28) – 성령으로” (행 2:1-13)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가리켜, (일명) ‘교회의 시작’ 또는 ‘교회의 태동’이라고 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의 책에서, “성령강림 사건 이전의 성령님은 (잠시) ‘함께(with)하시는 분’ 정도로만 인식되었는데, 오순절 성령강림사건 이후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within)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계주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처럼,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부터는) 교회가 (대신) 증거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1)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모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행2:1), 2)둘째는, 모인 사람들의 온 집이 가득했고 (또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역사였다는 것이며 (행2:2-3), 3)셋째는, 성령의 역사(오순절 성령강림 사건)로 인해, (비로소)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역동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행2:4). (이처럼) “하늘의 불꽃에 점화된 성령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며, (또한)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갈망하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을 좇아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